

고흥 동호덕고분 발굴, 남해연안 해상세력 수장묘 확인

백제·가야 문화 융합... 국내 최대규모 횡구식석실 고분 발굴

발굴현장 오는 22일 일반 공개 계획... 유적 가치 공유 기회

고흥군은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흥 동호덕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등 여러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횡구식석실 고분이 확인돼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대 역사문화인 '마한유적 발굴조사'로 전남도와 고흥군의 지원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발굴 조사된 '고흥 동호덕고분'은 분구 규모가 직경 1750cm의 원형분으로 무덤방(玄室)과 출입시설(羨道)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길이 884cm,

너비 168cm~184cm 정도이다. 무덤방의 규모는 길이 704cm, 최대너비 184cm 정도인데, 이는 국내에서 확인된 횡구식석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출입시설(羨道)은 무덤방 남쪽에 만들었는데, 길이 약 180cm이다.

고분에서는 은제관모장식, 삼포, 동경, 대도, 화살통 등의 고대 지역 수장과 관련된 유물과 함께 각종 토기류와 철기류, 옥류 등 300여 점 이상의 백제 및 가야 등과 관련된 유물이 확인됐다.

무덤방 바닥면은 석재와 붉은 토기편을 깔아 공간을 분리했으며, 추가적인 매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특징

도 확인됐다.

이러한 석실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과거 고흥지역이 해상항로의 거점 지역의 역할을 했다는 점과 백제 및 가야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규모의 수장급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흥군과 재단법인 나라문화연구원에서는 이번 발굴조사의 결과를 통해 '고흥 동호덕고분'의 구조와 축조 시기, 특징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우리군 문화원형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적이 확인



됐다"며, "역사 문화를 밝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권 정비 계획과 연계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과 재단법인 나라문화연구

원에서는 발굴 현장을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며, 유적의 공개를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유적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신용원 기자

순천 '새마을 한마음대회' 개최

순천시 14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2023년 새마을 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유현호 순천부시장과 순천시 새마을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되는 표창 시상식, 기념식, 명랑운동회와 화합 한마당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이라는 비전하에 우리 사회 곳

곳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철 순천시 새마을회장은 "순천시 새마을회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애수도 일류 순천 도약을 위한 공익사업, 시민운동 전개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군-중국 지주시 상호결연 20주년, 우호협력 다짐

"20년 교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상호이익과 공동발전 약속"



구례군이 중국 지주시와 상호결연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쌓아온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군의회 의장 등 16명의 교류 방문단이 최근 4일간 중국 안휘성 지주시를 찾았다.

지주시 평천호 일원에서 열린 20주년 기념행사는 두 도시의 지난 20

년간의 교류 성과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계속해서 상호 우호를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기념품 교환, 우정 나무 식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지주시 주호동 시장은 기념식에서 지주시와 구례군이 2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한중 우호의 향로를 따라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 현대농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상호이익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양 도시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더 높은 수준의 상호이익과 공동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 내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9명 모집

보성군은 15일까지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4명 증가한 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도모 및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며,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사업 신청서, 창업계획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15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나 거주 읍·면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성=장국도 기자

청암대 안경광학과, 노안 검안

처방 마이스터 과정 '개강'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는 교육부의 2023년 ECO-City HIVE사업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의 안경사 및 관련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노안 검안 및 처방 마이스터 과정'을 ECO-City HIVE사업 단장과 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안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타시에 비해 심각한 전라남도 순천시의 특성에 따라 노안에 검사 및 처방에 대한 직무 향상 교육의 필요성이 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청암대 안경광학과에서는 산업체 현장의 안경사 및 관련 산업체 재직자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노안 검안 및 처방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0주 과정의 '노안 검안 및 처방 마이스터 과정'을 개강하게 됐다.

ECO-City HIVE사업은 청암대와 순천시, 순천제일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1유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간 총 40억원(국비 36억원, 시비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광양 '덴마크 국립 체조단 초청 공연'

오는 17일 오후 4시 성황스포츠텐터서

광양시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성황스포츠텐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월드투어 공연을 펼치고 있는 '덴마크 국립 체조단 초청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덴마크 대사관 협조로 한국 투어 공연을 진행 중인 덴마크 국립 체조단을 광양시에서 특별 초청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색다른 글로벌 문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마련됐다.

1994년에 설립된 덴마크 국립 체조단은 'We move th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삶, 지역사회 기반 평생스포츠를 통한

자기 역량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이번 공연에서 체조에 예술을 접목한 현대리듬체조, 현대댄스, 아크로바틱 도마, 텀블링 트랩펄링과 고난도의 아크로바틱 등을 화려하게 선보여 건강 생활에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줄 계획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카타쇼, 흥분 가득 스토리, 경이로운 신비와 시적인 우주로의 여행, 움직임과 마법, 예술가적 기교 등의 환상적인 곡예술 쇼로, 33명의 공연팀이 120여 분간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은 별도 예매 없이 선착순 현장 자유석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곡성, 2025년도 기금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16개 사업 200억원 규모 사업 발굴... 발빠른 대응

곡성군에서 지난 10일 지방소멸 대응 및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 개발을 위해 「2025년도 기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이상철 군수 주재로 부군수, 전 부서 실과소원장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신규사업 16건, 2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필요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발전방안을

강구했다.

주거환경개선·경제·생활인구 증대·문화·의료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발굴된 사업들 중 인구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군민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관산학 실무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5년도 투자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상철 군수는 "금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25년도 투

자계획에 반영 가능한 사업들을 잘 체크하여 짜임새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군 간부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자체 중 상위 20%(18개소)로 확정받아 기초기금 112억과 광역기금 90억원 등 전남지역 최대금액인 202억을 확보했다.

/곡성=황상연 기자



한 적 하고 여 유 록 게 나 만 의
시 간 을 갖 고 싶 은 데 어 디 가 지?

집 나 가 면
'가' 이 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NAVER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작 수상작